

“관광상품, ‘강력한 한방’으로 집중해야”

한국여행작가협회장 선출 광주 출신 유철상 상상출판 대표

여행 콘텐츠 컨설팅 활동...강진·신안 등 지자체와 협업 세계여행가이드북 출간 “쿠킹클래스 등 목적여행 인기”

세계여행가이드북 ‘셀프 트래블’로 알려진 ‘상상출판’은 국내 대표 여행 전문 출판사다. 상상출판을 이끌고 있는 이는 25년 경력의 여행작가 유철상 대표. 광주대 문예창작과 출신으로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이기도 한 유대표는 여행 콘텐츠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강진 등 전국 지자체와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대표가 최근 (사)한국여행작가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 대표는 레저주간지 ‘FRYDAY’ 창간팀을 시작으로 에이비로드 편집장, 랜딩하우스코리아 여행출판팀 편집장을 거쳐 15년 전 상상출판을 시작했다. 정회원 등 330명이 소속된 한국여행작가협회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으로 직접 여행작가 학교도 열고 있다.

“여행작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요. 매 기수 40명을 모집하는데 30분이면 마감입니다. 검사, 은행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여행작가로 진로를 정해 두고 강자를 듣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여행은 ‘선경

협’입니다. 경험해 봐야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세상을 보는 눈도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 지망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부지런히 여행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48개국을 다녀온 그는 23책을 썼을 스테디셀러 ‘전국일주 가이드북’에 매년 새로운 정보를 쓰기 위해 끝없이 길 위로 나선다. 40여권이 나온 ‘셀프 트래블’ 시리즈는 베트남, 일본, 독일 등 여행 수요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2년 단위로 개정판을 낸다.

오랜 기간 여행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여행 트렌드의 변화도 느낀다. 코로나 이후에는 개별 여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쿠킹 클래스, 일본 사계 여행 등 목적 여행이 인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유대표는 상상콘텐츠 그룹의 콘텐츠연구소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 여행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홍보하고 있다. 최근 펴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수기를 공모해 묶은 책이다. 또 장흥의 ‘맛지도’를 제작했고, 신안과는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돼지국밥’ 한가지로만



콘텐츠를 만들었다.

“사업의 중복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맛지도’를 예를 들면 관광, 경제진흥과 등 여러 곳에서 진행해 효과가 분산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콘텐츠를 발굴하면 하나로 묶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최소 3년 단

위로 사업을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국책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와 접촉이 많은 유대표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강진의 사례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일반 행정조직은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선 멈춰야죠. 반면 유연한 재단 조직은 공모에 참여해 직접 사업을 따오고, 적극적으로 관광상품을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져 차별화가 되고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정착됩니다. 해남과 강진의 반값여행, 관광패스 등을 활용해 여행한 관광객들은 ‘알차게 여행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럼 성공한 겁니다. 반면 KTX가 연결돼 있고 ‘9홈9미’까지 개발한 목포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적어 아쉽습니다.”

유대표는 대구 치맥거리로 예로 들며 “무조건 더하고, 덧붙여 다양한 컨셉을 융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오히려 강력한 ‘원컨셉’으로 투자 등을 집중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에 조언했다.

한편 상상출판은 에세이도 꾸준히 발행중이다. “아직 책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출판을 고사했던 배우 박정민을 설득해 펴낸 ‘솔 만한 인간’은 10만부 넘게 판매됐고, 가수 남진의 데뷔 60주년 기념 서적 ‘오빠 남진’, 완도 용암리의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 김유술의 에세이 ‘제가 이마를 이장인디요’ 등이 대표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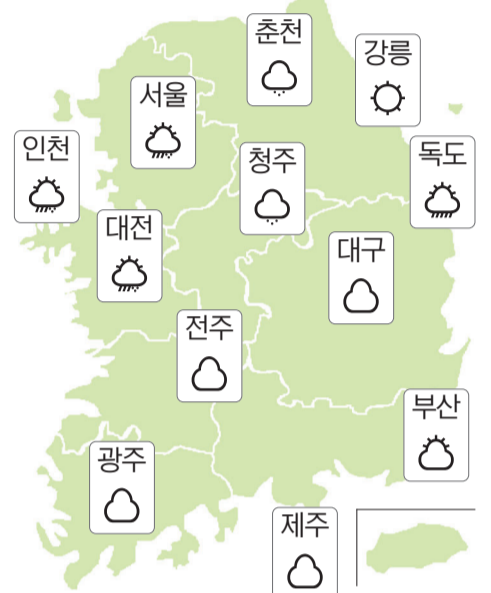
해돋이	07:41	달뜨기	17:54
해질	17:43	달짐	08:05

포근한 겨울

광주-전남 한낮기온 10도 내외를 보이겠다.

광주	흐림	-1/10	보성	흐림	-3/11
목포	흐림	3/9	순천	흐림	-2/12
여수	흐림	2/11	영광	흐림	0/9
나주	흐림	-2/10	진도	흐림	2/10
완도	흐림	2/12	전주	흐림	1/9
구례	흐림	-1/10	군산	구름많음	-1/9
강진	흐림	-1/11	남원	흐림	-3/9
해남	흐림	-1/11	축산도	흐림	7/11
장성	흐림	-2/1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1.0~2.0		
	면바다(북)	0.5~1.5	1.0~2.5		
	면바다(남)	0.5~1.5	1.0~2.5		
남해서부	앞바다	0.5	0.5~1.0		
	면바다(서)	0.5~1.0	0.5~1.5		
	면바다(동)	0.5~1.0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24 20:12	01:56 14:55
여수	03:05	09:45
	15:49	21:46

◇ 생활지수

미세먼지	나쁨
------	----

◇ 주간 날씨

15(수)	16(목)	17(금)
☁	☁	☀
-3/2	-3/6	-2/6
18(토)	19(일)	20(월)
☀	☀	☀
-3/8	-1/9	1/9

전남대 故 정익섭 교수 자녀들, 대학발전기금 1억원 기부

정 교수, 5·18 시국선언으로 해직·투옥 ‘민주화 헌신’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원로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던 고(故) 정익섭 교수의 자녀들이 선친의 업적과 뜻을 기리며 전남대학교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사진> 13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성택 총장과 정선 전남대학교병원장, 자녀 정규석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녀들은 “선친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학문을 이어갈 후학들을 응원하고 싶다”며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가 지닌 찬란한 전통이 앞으로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어국문학의 원로학자 정 교수는 1950년대 초

부터 은퇴할 때까지 30여 년간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며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창설과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 교수는 1979년 전남대학교 초대 직선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1980년 5월 15일 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그는 전두환 군부 정권에 의해 해직되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2020년 전남대 신문방송사가 5·18 직전 상황이 담긴 방송국 원고를 발견하면서 그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가 다시 주목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간호학과, 돈보스코 농구대회서 봉사활동



호남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 57회 돈보스코 농구대회’에서 건강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목포대, 학부모 대상 ‘디지털 시대 교육방향’ 특강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대공연장에서 전남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국립목포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18

화촉

▲김동수·박혜원씨 차남 민석(광주일보 경제부 기자)군, 이철수·정현숙씨 장녀 수민(뉴스1 광주 전남취재본부 기자)양=1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플랫폼’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675-1391.(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산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산청동 대광로제비마을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를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듣는 사람들(광주학당)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